

올 상반기 5대 범죄 줄고 검거는 늘고

올 상반기 살인, 강도, 절도, 강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6월 발생한 5대 범죄는 전년 대비 5.1% 줄어든 24만2291건이다. 강도가 16.8%(101건)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살인 8.6%(39건) ▲절도 7.5%(7342건) ▲폭력 4.2%(6241건) 등이 뒤따랐다. 다만 강간의 경우 8.2%(813건) 늘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및 블랙

전년 대비 5.1% 감소한 24만2291건 발생

검거율은 81.2%로 지난해보다 2% 상승

박스 증가, 경찰관 인력증원 등 치안 인프라가 확충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검거율은 8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상승했다. 절도는 4.5% 높아진 66.3%를 기록했고 살인은 1.4% 늘어난 101%, 강간은 0.1% 올라 96.9%, 폭력은 0.1% 상승한 89.4%로 집계됐다. 다만 강도

의 경우 2.9% 감소해 100.6%로 나타났다.

5대 범죄 발생은 최근 5년 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검거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62만4956건이었던 5대 범죄는 2013년 60만6362건, 2014년 57만9057건, 2015년 57만4021건, 지난

해 53만5898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검거율은 2012년 61.2%에서 2013년 63.2%, 2014년 66.3%, 2015년 71.7%, 지난해 77%까지 상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생활범죄수사팀 신설, 테마별 집중단속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5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경찰관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스

필리핀, 아부 사야프 납치·탈옥 연이어 발생

필리핀의 이슬람국가(IS) 추종 무장단체 아부 사야프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이 연이어 납치·탈옥 사건을 벌이면서 필리핀 내 IS 추종세력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필리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30분께 약 20명의 무장괴한들이 필리핀 남부 술루주(州)의 한 학교에 침입해 현장 노동자 6명을 납치했다. 그 중 한 명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필리핀군이 한 명을 더 구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몸값을 노리고 술루의 정글에 숨어 외국인과 필리핀 국민을 인질로 삼는 무장 세력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경찰은 남은 네 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튿날인 16일 오전에는 아부 사야프 대원으로 추정되는 14명의 수감자들이 술루주 홀로시(市) 소재 감옥에서 대거 탈출했다. 경찰은 필리핀군이 동원돼 무인 항공기와 탐지견 등을 이용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은 연이어 발생한 두 사건이 두테르테 행정부가 직면한 안보 위기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필리핀 남부를 이슬람국가(IS) 추종 무장단체가 점령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IS 확산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필리핀군은 지난 5월23일부터 남부 민다나오섬 마라위시(市)를 점령한 IS 추종단체와 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장대원 399명을 비롯해 군인과 경찰 약 98명 등 모두 58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콰도르서 버스 전복 화재로 14명 사망

에콰도르 키토를 출발해 라마나로 향하던 버스 한 대가 14일 밤(현지시간)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했다고 에콰도르 긴급구조서비스 ECU 911이 15일 밝혔다.

ECU 911의 디에고 리팔다 국장은 지난 14일 밤 9시44분(현지시간) 한 시민이 ECU 911에 전화로 고속도로에서 버스 한 대가 불타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에콰도르 언론들에 따르면 버스가 전복되면서 화염에 휩싸였고 희생자들은 미처 버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부상자들은 수도 키토의 여러 병원에 분산 수용됐다.

리팔다 국장은 사고 신고 접수 10분이 채 안돼 소방관과 경찰, 구조팀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조사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바레이로는 "버스가 무엇인가에 부딪쳐 도로에서 벗어나면서 전복된 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는 에콰도르에서 주요 사망 원인의 하나로 정부는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과 과속이 사고를 일으킨다고 비난하고 있다.

신부 아버지, 결혼식 축하 도중 번개 맞아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축하를 하다 벼락에 맞았다. 신랑과 신부를 비롯한 하객들 모두는 그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줄 알았지만 다행히 무사했다.

CBC에 따르면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에 살고 있는 JP 네이도는 지난 8일 로어 우드스타에 있는 자신의 사과 농장 뒤뜰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하다 벼락을 맞았다.

네이도는 "결혼식 파티에서 축하를 하고 있을때만해도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데 풀렸다"며 "벼락이 나의 몸을 통과할 때 떨어진 내 옆에서 그것을 다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마이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벼락이 음향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듯 했다. 손이 번쩍하더니 불꽃이 피어올랐다"며 "내 손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마치 벼락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대단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당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계속해서 결혼식을 진행했다.

이후 네이도의 엄지손가락에는 작은 흔적이 생겼다. 심지어 좋지 않던 무릎도 괜찮아졌다. 그는 이 흔적이 번개의 전기가 들어갔다 나온 표시라고 여겼다.

네이도의 구사일생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5년 포클랜드 제도에서 일하고 있던 유람선에 불이 붙어 영국 공군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뉴스스



전쟁터 같은 청주시내 도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사직동 저지대 도로에서 폐병장고 등 가재도 구가 동통 떠다니고 있다. 호우 경보가 내린 청주 지역에는 이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승용차·냉장고 등등...290mm 폭우 청주는 '전쟁터' 방불

휴일인 16일 오전 무려 290mm의 물 폭탄이 쏟아진 충북 청주 시내 곳곳은 승용차가 잠기고 가재도구가 불에 동통 떠다니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청주 지역 강우량은 290.1mm에 달한다. 청주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은 1995년 이후 22년 만이다. 청주시는 신봉동 등 산사태와 침수 우려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무심천 하상도로가 전면 통제됐으며 가경 터미널 지하차도와 용암 지하차도, 산남동과 분평동 일부 교차로, 사직동 충북지방법무청 앞 도로, 북대동 교차로,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주차장 등 곳곳이 침수됐다.

상리 교차로와 주성 교차로 전 구간, 솔밭공원 교차로, 북대동 롯데마트 앞 도로도 휴탕물로 뒤덮인 상태다. 충북선 철도 증평군 구간도 침수돼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미호천, 무심천, 울랑천, 석남천, 증평 보강천과 삼기천 등 청주와 인근 지역 주요 하천은 범람 위기를 맞았으나 오후 들어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증평 삼기천의 제방 100여m가 유실됐으며 인근 덕상리 마을 주민들은 범람 우려로 인근 증평공고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보강천 둔치 주차장의 차량 57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주 우암산 터널 도로, 청주 미원면 지방도 등에는 토사가 유출돼 통행 차량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청주뿐만 아니라 진천군과 괴산군 지역 도로 10곳에도 토사가 유출돼 해당 구간이 응급 복구작업을 벌였다.

침수 도로에서는 미처 옮기지 못한 승용차들이 불어난 물에 오도가 도 못한 채 침수 피해를 당했고 사직동 침수 도로에는 인근 중고 가전매장의 소유로 보이는 냉장고를 등가 전제품 수십 개가 물에 떠다니기도 했다.

뉴스스

큰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